

# 불평등과 행복:

## Sen의 역량이론의 관점에서 본 불평등의 작동 메커니즘\*

임재영\*\*

구교준\*\*\*

최슬기\*\*\*\*

### 〈目 次〉

I. 서론

II. Sen의 역량과 불평등

III. 불평등의 소득효과 조절 메커니즘

IV. 행복방정식 추정을 위한 실증분석

V. 결 론

### 〈요 약〉

많은 기존 연구들이 불평등을 행복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불평등이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소득의 한계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서 불평등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Sen의 역량이론과 연결시켜 시도한다. Sen의 역량 개념을 개인이 가치를 두고 있는 행위나 상태를 얼마나 자유롭게 추구하고 달성할 수 있는지라고 정의한다면, 계층 이동이 어려운 구조적 불평등은 바로 역량이론에서 강조하는 개인이 각자의 가치를 자유롭게 추구하고 있는 환경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선 한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높아질수록 소득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개인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을수록 평등한 사회일수록 행복 결정요인으로서 소득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역량 중심의 접근은 소득과 같은 삶의 상대적 조건의 영향을 감소시켜 보다 지속가능한 행복이 가능하게 해 준다. 불평등이 삶의 역량 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라고 한다면, 개인 간, 계층 간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한 행복 수준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불평등, 역량, 행복】

\* 본 연구는 아산사회복지재단과 한국연구재단(NRF-2013S1A3A2053959)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제1저자,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jylimecon@korea.ac.kr)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jkoo@korea.ac.kr)

\*\*\*\*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chois@kdischool.ac.kr)

논문접수일(2016.5.9), 수정일(2016.6.2), 게재확정일(2016.7.1)

## I.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산업화 시기 동안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성장을 가능케 했던 요인들로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및 대기업 위주의 수출육성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경제적인 성공을 단기간에 거두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이 가져온 사회갈등도 만만치 않게 경험하고 있다. 즉 과도한 교육경쟁 및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한 인간관계의 변질,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파생된 사회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이로 인한 저투자,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수출중심 산업구조가 야기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등은 현재 우리사회의 주된 사회갈등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국민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답한 점수는 1980년 10점 만점에 평균 5.34점이었고 1990년 6.69점으로 증가하였지만 2001년 6.21점, 2005년에는 6.35점으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미곤 외, 2014).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1990년에 6,303달러, 2005년에 17,531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소득이 3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행복 수준은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소폭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내용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소득 수준 증가가 곧 국민들의 행복 수준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Esterlin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Esterlin, 1974, 1995). ‘행복 패러독스’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주장은 상대적 효용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행복 수준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정해지며, 절대적인 소득이 일정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각 개인은 자신의 기대 수준을 타인과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어 그 이후 소득이 추가로 증가하더라도 행복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 사회의 전반적인 행복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개인 소득 수준의 상대적인 위치, 즉 불평등 정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기존 연구들이 사회적 불평등이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Alesina, Tella, & MacCulloch, 2004; Graham & Felton, 2006; Hopkins, 2008).<sup>1)</sup>

그러나 이들 연구는 불평등이 행복 수준에 단순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소득의 한계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1) 다만 Clark(2003) 등의 최근 연구 중에는 불평등과 행복 간에 뚜렷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주장도 있다. 이는 절대소득과 상대소득의 중요성이 소득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패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있다. 소득의 한계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서 작동하는 불평등의 메커니즘은 이러한 불평등 개념을 Sen의 역량이론(capability theory)과 연결시킬 때 이해가 가능하다. Sen의 역량 개념은 개인이 가치를 두고 있는 행위나 상태를 얼마나 자유롭게 추구하고 달성할 수 있는 지로 정의되는데, 계층 이동이 어려운 구조적 불평등은 곧 이러한 역량이론에서 강조하는 개인이 각자의 가치를 자유롭게 추구하고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Sen의 역량이론을 활용하여 불평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과 소득효과의 조절 메커니즘을 입체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우선 이론적인 측면에서 불평등이 행복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Sen의 역량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시도는 특히 기존 연구에서 등한시 되었던 불평등의 소득 한계효과에 대한 영향을 재조명해 본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둘째, 소득 한계효과의 조절변수로서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우리 사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소득 1만 불에서 2만 불, 2만 불에서 3만 불과 같이 양적인 정책목표에 주로 집착해 왔다. 그 결과 어떻게 하면 사회 전반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에 관한 국민 삶의 질적 측면에서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소득의 한계효과에 대한 분석은 바로 이러한 국민 삶의 질적 부분에 대한 논의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삶의 질에 대한 정책적 담론을 모색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II. Sen의 역량과 불평등

역량이론은 개인이 가치를 두고 있는 여러 삶의 조건들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중요시한다(구교준 외, 2014). Sen(1980)은 개인이 가치를 두고 있는 행위나 상태를 삶의 기능(functioning)이라고 개념화하였는데, 이 때 역량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재적인 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의 집합이라고 정의된다. 이와 같은 삶의 기능과 역량 개념은 Sen의 이론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Robeys, 2005). 삶의 질에 대한 논의에서 Sen은 역량 중심의 접근이 가지는 유용성을 기존의 자원 중심의 접근과 차별화되는 지점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자원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개인이나 사회의 능력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삶의 본질적인 기능의 불평등을 다룰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Sen의 역량론은 매우 유연한 개념으로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상이한 개인의 선호를 담을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역량을 잠재적인 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의 집합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의 역량은 개인의 선호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로 현시될 수 있다. 역량이 가지는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Sen은 모든 국가와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역량의 구체적인 목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Vallentyne, 2005). 이러한 맥락에서 역량 접근은 결국 개인에게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삶의 기능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 즉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는 사회적 환경 혹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sup>2)</sup>

이처럼 Sen의 역량 개념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기회의 보장이라고 이해한다면 역량은 불평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특히 개인이 스스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환경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선택과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 불평등이 발생한다면, 이는 바로 Sen이 강조한 역량이 결여된 사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심각한 불평등의 존재는 자유로운 선택과 기회가 결여된 사회적 환경을 암시하고, 이는 곧 그 사회에 속한 개인들에게 중대한 역량의 결핍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불평등 정도를 사회 수준의 역량이라고 간주하고, 그 불평등에 대한 개인의 인지정도를 개인 수준의 역량으로 간주하여 불평등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 수준의 역량을 사회 내 존재하는 여러 불평등 정도로 표현하고자 하는 접근의 당위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개인 혹은 가구 특성 이외에 개인이 속한 사회의 특성 역시 개인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행복의 결정요인으로서 사회적 환경에 주목하는 논의는 흔히 정치학 분야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들 연구는 민주주의나 자유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환경을 개인이 가치를 두고 있는 삶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환경 조건이라고 주장한다(Dorn et al., 2007; Inglehart et al., 2008). 따라서 개인이 스스로의 가치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논의는 Sen이 제시한 역량 개념과 상당 부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2) 그렇지만 Sen과 함께 역량이론을 발전시킨 대표적인 학자인 Nusbaum(2000)은 일반화된 삶의 역량 목록을 제시하여, 삶의 역량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 가치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역량(basic capability)과 기본적 가치가 충족된 이후에 추구할 수 있는 상위역량(advanced capability)으로 구분하였다.

볼 수 있다.

전술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각 국가별로 존재하는 불평등 정도를 개인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수준의 역량을 반영하는 중요 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Clark 외(2008)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개인이 가치를 두고 있는 다양한 삶의 조건들을 자유롭게 추구함에 있어 사회 내 존재하는 불평등 정도가 그 과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Nusbaum(2000)이 제시했던 삶의 역량 목록에서 기초역량으로 분류되어 있는 건강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건강은 가치 있는 인간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고 따라서 일차적으로 삶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기능)인 동시에 다른 기능을 선택하고 성취할 수 있는 자유와 연관된다. 따라서 건강 불평등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건강이 개인 수준의 기초역량을 나타내는 주요 요인이라면, 건강이 곧 상위 역량인 교육과 훈련을 위한 필요조건이 되고 교육과 훈련은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건강 불평등으로 인해 필수적인 건강 수준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는 추후 교육 기회와 성과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개인의 자아실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성 불평등 역시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만약 여성이 높은 수준의 고등 교육을 받아 개인 수준의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일 사회 내의 성 불평등으로 인해 이들의 계층 이동에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면 여성의 역량 실현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성 불평등 현상은 여성이 높은 수준의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성 불평등 현상은 여성의 삶의 역량 형성 및 그 실현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 내 존재하는 불평등은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역량의 현실화 과정에서 중요한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불평등이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 내 존재하는 불평등을 사회 수준의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수로 간주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불평등 현상에 대한 개인의 인지정도를 개인 수준의 역량으로 간주한다. Sen의 역량 이론은 자원과 삶의 질, 즉 행복 수준을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제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에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구교준 외, 2014). 비록 Nusbaum(2000)에 의해 역량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이 또한 일반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듯 개인의 역량 수준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변수의 선정이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개인이

특정 사회 현상에 대해 인지하는 내용을 개인의 역량으로 간주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 불평등이라는 사회 현상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소득 불평등 현상이 자신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지될 수 있는 반면, 어떤 이에게는 이 현상이 자신의 역량 강화에 일종의 제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지될 수 있다. 즉 동일한 현상에 대한 각 개인의 이질적인 인식은 곧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삶의 역량 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장승진(2011)은 2009년 제7차 한국종합사회조사를 사용하여 한국 사회의 소득격차 및 빈부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이양호(2013)는 기회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전술한대로 본 연구는 사회 내 존재하는 여러 불평등 현상을 사회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간주하고, 이러한 불평등 현상에 대한 개인의 인지정도는 곧 개인이 스스로 추구하고자 하는 일들을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개인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 Ⅲ. 불평등의 소득효과 조절 메커니즘

그렇다면 이처럼 한 사회와 개인의 역량 수준을 담고 있는 불평등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행복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의 행복 수준은 크게 삶의 상대적인 조건과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존 연구들, 특히 행복의 패러독스를 다루는 연구들은 전자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연구는 열망(aspiration), 적응(adaptation), 쳄바퀴효과(treadmill effects)의 개념을 통해 삶의 상대적 조건이 어떻게 행복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한다(Bruni & Porta, 2005). 개인은 흔히 자신의 현재 상황과 이상적인 상황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줄이려는 열망을 형성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심리적 만족감, 즉 행복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행복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강조한 hedonic한 행복에 가깝고 주로 물질에 대한 과시적 소비를 통해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Ryan and Deci, 2001). 그런데 이렇게 얻어진 행복은 대체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심리학에서 발전된 set point 이론에 의하면 삶의 객

관적 조건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더라도 대부분의 개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삶의 조건에 적응하며, 따라서 그로 인한 행복 수준의 변화는 일시적인 효과만을 가지게 된다 (Easterlin, 2001). 결국 개인은 새로운 이상적 상황을 설정하여 또 다른 열망을 형성하고 이러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되풀이하는 쳃바퀴 효과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한 사회나 개인이 비교에 바탕을 둔 삶의 상대적 조건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등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를 드러내 주는 대상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행복 수준도 주로 이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적응과 쳃바퀴 효과로 인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다.

행복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요인은 삶의 절대적인 조건에서 찾을 수 있다. 삶의 절대적인 조건은 건강이나 교육과 같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수준보다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수준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분야를 포함한다. 이러한 분야가 가지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열망과 적응의 쳃바퀴 효과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점이며, 이러한 특징은 Aristotle이 강조한 eudaimonic한 행복에 가깝다(Ryan and Deci, 2001). 따라서 한 사회에서 행복의 결정요인으로서 삶의 절대적 조건이 활성화되면 소득과 같이 단기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삶의 상대적인 조건은 그 중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앞 절에서 언급한 삶의 역량은 절대적인 수준이 상대적인 수준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표적인 예이다.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것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개인이라면 다른 사람이 문학작품을 얼마나 읽는지 보다는 자기 자신이 문학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감동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 보다는 많은 경우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가 개인의 행복수준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건강이나 문화와 같이 개인이 많은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역량의 경우 상대적인 위치보다는 절대적인 위치가 중요하며, 이는 곧 행복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삶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구교준 외, 2014).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불평등이 가지는 소득효과의 조절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앞 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불평등이 사회적, 개인적 수준의 역량을 보여주는 대리지표라고 한다면, 불평등의 수준에 따라 행복 결정요인으로서 소득이 갖는 중요성, 즉 소득효과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불평등 수준이 높은 사회의 경우 삶의 절대적 조건과 행복 간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행복의 결정요인으로서 소득과 같은 삶의 상대적 조건이 갖는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된다. 그러나 불평등

정도가 낮은 사회의 경우 삶의 절대적 조건과 행복 간의 연결고리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행복의 결정요인으로서 소득과 같은 삶의 상대적 조건이 갖는 중요성은 줄어들게 된다. 이 때,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삶의 상대적 조건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열망, 적응, 칠팔쿠효과로 인해 단기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의 경우 행복 결정요인으로서 소득이 갖는 중요성이 불평등한 사회에 비하여 작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복의 결정요인으로서 소득의 중요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당한 함의를 가진다. 즉 단기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삶의 상대적 조건에 행복을 의존하는 정도가 낮아진다는 의미로,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의 경우 행복 패러독스에 직면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 IV. 행복방정식 추정을 위한 실증분석

### 1. 행복결정요인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

여러 선행연구(Diener et al., 1993; Inglehart, 1997; Easterlin, 2001)들에서 소득은 여전히 행복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연구들은 행복의 결정요인으로서 소득이 갖는 영향력이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 밖에 행복의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는 개인 수준에 대한 논의와 사회 수준에 대한 논의의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개인 수준에서 소득과 함께 공통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변수는 건강과 교육이다. 이들 세 가지 변수는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UNDP)이 발표하는 Human Development Index의 핵심 지표이기도 하다. Subramanian et al.(2005)은 평균적인 건강 수준과 행복 수준 간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Diener and Lucas(1999)는 행복 수준은 육체적인 건강 뿐 아니라 긍정적인 성격에 의해서도 영향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정규교육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이나 건강만큼 뚜렷하지는 않으나, 개인이 스스로의 필요 혹은 배움의 욕구 충족을 위해 추구하는 직업교육이나 취미교육은 상대적으로 행복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artog and Hessel, 1998; Michalos, 2008).

사회 수준의 행복결정요인으로는 민주주의, 자유 등과 같은 정치 사회적 환경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민주주의(Dorn, Fischer, Kirchgassner, & Sousa-Poza, 2007; Frey & Stutzer, 2000)나 자유(Inglehart, Foa, Peterson, & Welzel,



2008; Veehoven, 2000)가 의미하는 정치적 환경은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기능을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하는 과정에 필요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개인의 역량과 관련된 행복의 결정요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또한, Inglehart(2009)는 국가 간 행복 수준의 차이를 그 사회의 안정성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한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이나 테러로부터의 위협 정도 등은 국가 구성원의 행복 수준에 주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나타내는 변수를 분석에 활용한 것이다.

## 2. 분석모델 및 변수

전술한대로, 본 연구는 불평등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삶의 역량 개념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절은 각 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현상을 사회 수준의 역량으로,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 현상에 대한 개인의 인지 정도를 개인 수준의 역량으로 간주하여 이들 역량이 소득과 행복 수준 간 인과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한다.

우선 아래 식 (1)과 (2)는 앞에서 제시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절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행복결정방정식을 나타낸다. 식 (1)은 사회 수준의 역량 개념을 활용하여 소득이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불평등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고찰하기 위해 설정된 추정식이며, 식 (2)는 개인 수준의 역량 개념을 활용하여 소득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불평등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갖는지 고찰하기 위해 설정된 추정식이다.

$$H_i = \beta_0 + \beta_1 Y_i + \beta_2 ID_i + \beta_3 STA_i + \beta_4 IEQ_i + \beta_5 (Y_i \times IEQ_i) + \epsilon_{1i} \quad (1)$$

$$H_i = \alpha_0 + \alpha_1 Y_i + \alpha_2 ID_i + \alpha_3 STA_i + \alpha_4 PEQ_i + \alpha_5 (Y_i \times PEQ_i) + \epsilon_{2i} \quad (2)$$

위의 식에서 종속변수  $H_i$ 는  $i$ 국가의 행복 수준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각 국가별 행복 수준으로 활용한 자료원은 Gallup World Poll에서 2011년 조사한 각국의 행복 수준이다. 이 자료원은 전 세계 147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주관적 행복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각국의 행복 수준은 1,000명 이상의(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2,000명 이상) 개인에게 설문을 통해 현재 인지하고 있는 삶의 만족도와 앞으로 예상되는 삶의 만족도를 0~10점 척도로 주관적 응답한 내용에 기초하여 얻어진다. 따라서 Gallup World Poll은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즉 행복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자료원으로 평가된다.

$Y_i$ 는 조사대상 국가의 2011년 소득 수준을 1인당 GDP 수준으로 나타낸 것이며,  $ID_i$

는 각국 국민 개인 수준의 행복결정요인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술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국 국민들의 건강 및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즉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들로는 각국의 2011년 기준 평균기대수명과 만성질환사망률을 활용하였다. 만성질환사망률은 30세에서 70세까지의 연령대에 속한 전체 인구 중에서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 당뇨 혹은 만성호흡기계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 자료는 WHO에서 발간되는 자료로 2011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2011년에 가장 근접한 기간의 자료인 2012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각 국가별 15세 이상 국민의 문자해독률을 활용하였다.

$STA_i$ 는 국가  $i$ 의 사회 수준 행복결정 요인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국가별 시민자유 수준, 부패 수준 및 정치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각 국가별 시민자유 수준은 Freedom House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자유 수준을 사용하였다. Freedom House의 자료는 1~7점 척도로 값이 클수록 자유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11년에 발간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국가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부패 수준은 공권력이 사적인 이익 등을 위해 동원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자료는 World Bank의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에서 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인 2011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고려하기 위해, 역시 World Bank의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에 포함된 정치적 안정성 변수를 활용하였다. 이 변수는 전 세계 100여개 국가들의 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 정치 체제의 전복 가능성에 대한 설문을 통해 도출된다.

위 식 (1), 즉 소득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사회 수준의 역량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고찰하기 위해 설정된 추정식에서 사회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소득 불평등과 성 불평등 현상을 이용하였다. 먼저 소득 불평등 현상의 경우 World Bank에서 발간하는 World Development Indicator에 포함된 각 국가별 2011년도 지니계수를 사용하였고, 성 불평등 현상의 경우 UNDP에서 발간하는 성 불평등 지수를 사용하였다. 성 불평등 지수의 경우 2011년에 가장 근접한 년도인 2013년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위 식 (2), 즉 소득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개인 수준의 역량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고찰하기 위해 설정된 추정식에서 개인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변수로 본 연구는 각종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각국 국민들의 인지 정도를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된 변수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Legatum Prosperity Index를

구성하기 위해 그 하부 index로 사용된 Entrepreneurship and Opportunity 지수이다. 이 지수는 각 국가의 기업 환경, 즉 창업의 용이성 및 기업가에 대한 사회의 인식 등에 대한 설문을 통해, 각 개인이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 균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측정한다. 즉 자신에게 실력이 있다면 그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믿고 있는지를 통해 각 국가의 기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개인의 인식 정도가 측정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기간인 2011년도와 가장 근접한 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두 번째로는 World Value Survey에 포함된 사회 내 계층 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인지 정도를 활용하였다.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보면 “열심히 일하면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에 대한 개인의 신뢰 정도를 0에서 10점 사이에 측정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사회 내 계층 간 이동성에 대한 혹은 사회 내 소득 불평등 현상에 대한 개인의 인식 정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Bjórnskov(2012)의 연구에서도 이 변수를 사회 내 계층이동성에 토대를 둔 소득 불평등 현상에 대한 개인의 인식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활용하였다.

식 (1)과 (2)에 나온 소득 수준과 개인 혹은 사회 수준의 역량 간 교호항은 소득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인과관계에 개인 혹은 사회 수준의 역량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함되었다. 즉 각 국의 소득 수준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 수준이 행복 수준에 직접 미치는 부분과, 개인 혹은 사회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변수와의 교호작용을 통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곧 각 국의 개인 혹은 사회 수준의 역량, 즉 불평등 정도에 따라 각 국의 소득 수준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개인이나 사회 수준의 불평등이 높을 경우 삶의 상대적 조건으로서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에 따르면,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3. 분석 결과

#### 1) 기초통계량

〈표 1〉은 본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전술한대로 각 국의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소득 수준 이외에 개인 수준 변수와 사회 수준 변수가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사회불평등 정도를 사회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변수로, 불평등 현상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개인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

인 각 국 국민들의 주관적 안녕 정도는 0에서 9점까지의 점수로 구성된 척도로 측정되었다. 해당국의 국민들이 측정한 행복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이러한 산술평균값의 분석대상 국가 평균은 5.39점이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은 2011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으로 나타내었으며, 분석대상 국가의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은 \$14,853이었다.

〈표 1〉 기초통계량

구분	변수설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행복	산술평균 행복지수	5.39	1.17	2.8	7.8
독립변수					
소득	1인당 GDP(US \$)	14,853.01	20,441.67	237	107,206
개인 수준 변수	15세 이상 문자해독률(%)	83.63	17.62	31.09	99.79
	평균기대수명	69.94	9.60	45.10	83.42
	10만 명당 만성질환 사망자	18.87	5.94	9.06	10.83
사회 수준 변수	시민자유 수준	3.34	1.81	1	7
	부패 수준	-0.04	1.02	-1.68	2.45
	정치적 안정성	-0.11	0.96	-2.81	1.51
사회 수준 역량	소득 불평등	0.39	0.08	0.25	0.64
	성 불평등	0.37	0.19	0.02	0.73
개인 수준 역량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	0.42	1.92	-3.76	4.19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4.23	0.83	2.11	6.54

## 2) 소득과 행복의 관계

우선 개인 수준 혹은 사회 수준의 역량(즉 불평등)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전에, 앞서 제시했던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주장한 Esterlin의 역설을 고찰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원래 설정한 회귀식과는 달리 소득의 제곱항을 분석과정에 추가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각 국의 산술평균 행복지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한 추정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의 결과를 보면 소득변수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 수준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소득의 제곱항의 경우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추정계수가 음으로 나와 일정 수준까지만 소득의 증가가 행복 수준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한계효과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 수준 변수에서는 평균기대수명과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수준 변수에서는 각 국의 부패도와 정치적 안정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영향의 방향은 예상한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소득과 행복수준의 관계 (종속변수: 산술평균 행복지수)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t-value	P-value
소득변수				
1인당 GDP	0.0000446**	0.0000215	2.07	0.042
1인당 GDP <sup>2</sup>	-2.08×10 <sup>-10</sup>	2.77×10 <sup>-10</sup>	-0.75	0.456
개인 수준 변수				
15세 이상 문자해독률	0.0083	0.0076	1.09	0.278
평균기대수명	0.0280*	0.0147	1.91	0.061
10만 명당 만성질환사망자	-0.0712***	0.0187	-3.80	0.000
사회 수준 변수				
시민자유 수준	0.0579	0.0770	0.75	0.454
부패 수준	-0.6105***	0.2196	-2.78	0.007
정치적 안정성	0.4114**	0.1676	2.45	0.017

주: \*\*\*, \*\*, \* 는 유의수준 1%, 5%, 10%에서 각기 유의하다는 의미임.

### 3) 불평등이 소득의 한계효과에 미치는 영향

#### (1) 사회 수준 역량의 경우

전술한대로 사회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소득 불평등과 성 불평등 정도를 활용하였다. 우선 소득 불평등 정도를 사회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변수로 설정하고 이 변수가 소득과 행복 수준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은 소득 불평등 정도를 사회 수준 역량을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하여 추정된 회귀식의 결과이다. 모델 1은 사회 수준 역량을 나타내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때의 추정 결과를, 모델 2는 사회 수준 역량을 나타내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활용했을 때의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모델 3은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변수 뿐 아니라 불평등과 소득과의 교호항을 포함하여 불평등이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3〉 소득불평등이 행복수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산술평균 행복지수)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소득변수			
1인당 GDP	0.0000303*** (0.00001)	0.0000314*** (0.00001)	0.0000301*** (0.00001)
개인 수준 변수			
15세 이상 문자해독률	0.0097 (0.0073)	0.0034 (0.0082)	0.0045 (0.0081)
평균기대수명	0.0292** (0.0145)	0.0471** (0.0185)	0.0346* (0.0192)
10만 명당 만성질환사망자	-0.0718*** (0.0186)	-0.0329 (0.0236)	-0.0405* (0.0234)
사회 수준 변수			
시민자유 수준	0.0512 (0.0762)	0.0415 (0.0826)	0.0684 (0.0818)
부패 수준	-0.6029*** (0.2186)	-0.3811* (0.2297)	-0.3439 (0.2251)
정치적 안정성	0.4148** (0.1670)	0.3342** (0.1645)	0.3608** (0.1612)
사회 수준역량 변수			
지니계수		0.0386*** (0.0125)	0.0131 (0.0178)
1인당 GDP*지니계수			4.49×10 <sup>-6</sup> * (2.30×10 <sup>-6</sup> )

주: \*\*\*, \*\*, \* 는 유의수준 1%, 5%, 10%에서 각기 유의하다는 의미이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우선 모델 1, 2, 3에서 모두 소득변수는 행복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소득 불평등 변수를 활용한 모델 2와 3의 추정결과를 고찰해보면, 우선 모델 2의 경우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행복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행복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 연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사회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소득 불평등 변수와 소득 변수 간 교호항을 분석에 활용하여 얻은 모델 3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지니계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지고 교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니계수가 가지는 계수값의 크기가 교호항을 포함한 모델 3에서는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불평등의 영향이 대부분 소득효과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모델 3의 추정결과는 한 국가의 소득 불평등 현상이 심화될수록 소득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증폭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소득 불평등 정도가 개선되어 국민들 간 빈부격차 및 양극화 문제가 해결될수록 소득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것임을 시사해주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각 국가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소득 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사회가 가지는 역량의 수준이 낮을 것이고, 따라서 소득과 같은 삶의 상대적 조건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물질적 부와 같이 개인의 상대적 지위를 드러내 줄 수 있는 조건을 추구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지는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열망과 적응의 쳄바퀴 효과에 쉽게 노출되어 지속가능한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한편 전술한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변수로 소득 불평등 이외에 성 불평등 정도도 활용하였다. <표 4>에는 성 불평등 정도를 사회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지수로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모델 1은 사회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때의 추정결과를 의미하며, 모델 2는 사회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성 불평등 정도를 활용했을 때의 추정결과를 나타내며, 마지막 모델 3은 성 불평등을 나타내는 변수뿐만 아니라 이 변수와 소득 간 교호항을 분석에 활용하여 사회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변수가 갖는 조절효과를 고찰하였다.

<표 4> 성불평등이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종속변수: 산술평균 행복지수)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소득변수			
1인당 GDP	0.0000303*** (0.00001)	0.0000415*** (0.00001)	0.0000295** (0.00001)
개인 수준 변수			
15세 이상 문자해독률	0.0097 (0.0073)	0.0203** (0.0080)	0.0117 (0.0085)
평균기대수명	0.0292** (0.0145)	0.0512*** (0.0158)	0.0416** (0.0157)
10만 명당 만성질환사망자	-0.0718*** (0.0186)	-0.0513*** (0.0190)	-0.0597*** (0.0186)
사회 수준 변수			
시민자유 수준	0.0512 (0.0762)	0.0511 (0.0785)	0.0476 (0.0756)
부패 수준	-0.6029*** (0.2186)	-0.4626** (0.2243)	-0.5196** (0.2174)
정치적 안정성	0.4148** (0.1670)	0.5081*** (0.1780)	0.4688*** (0.1723)
사회 수준 역량			
성 불평등		3.1813*** (1.0300)	1.9037* (1.1271)
1인당 GDP*성 불평등			0.00015** (0.00006)

주: \*\*\*, \*\*, \* 는 유의수준 1%, 5%, 10%에서 각기 유의하다는 의미이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먼저 모든 모델에서 소득변수는 행복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의 경우 성 불평등 수준이 행복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성 불평등 변수와 소득변수 간 교호항을 분석에 활용하여 얻은 모델 3의 추정결과를 고찰해보면, 성 불평등도가 행복 수준에 미치는 양의 영향이 대폭 감소하고 통계적 유의미성도 거의 사라진 반면, 교호항은 행복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성 불평등도가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상당 부분이 소득을 통한 효과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즉 앞서 소득 불평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성 불평등 현상이 심화될수록 소득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양의 영향이 더욱 증폭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 추정결과는 성 불평등 정도가 개선되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혹은 고전적인 성 역할로부터 여성이 자유로워질수록 소득과 같은 삶의 상대적 조건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국가의 성 불평등 정도는 앞서 살펴본 소득 불평등 정도와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2) 개인 수준 역량의 경우

개인 수준 역량을 나타내는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 불평등에 대한 개인의 인식 정도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과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두 가지를 측정하였다. 두 변수 모두 값이 커질수록 기회의 정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계층 이동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 활동을 통한 경제적 성공 기회가 얼마나 균등한지에 대한 Legatum Prosperity Index의 설문을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표 5>는 기회균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개인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지수로 활용하여 얻은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모델 1은 개인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때의 추정결과를 의미하며, 모델 2는 개인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기회균등에 대한 개인의 인식 정도를 활용했을 때의 추정결과를 나타내며, 마지막 모델 3은 개인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변수뿐만 아니라 이 변수와 소득 간 교호항을 분석에 활용하여 개인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변수가 갖는 조절효과를 고찰하고자 사용한 것이다. 소득변수는 모델 1, 2에서 행복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델 3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한편 개인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변수를 활용한 모델 2와 3의 추정결과를 고찰해보면, 모델 2의 경우 기회균등에 대한 인식이 행복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기회의 정도에 대하여 개인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즉 자신에게 실력이 있다면 그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을수록) 그 국가의 행복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개인 수준의 역량이 행복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개인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변수와 소득 변수 간 교호항을 분석에 활용하여 얻은 모델 3의 추정결과를 고찰해보면, 개인 수준의 역량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소득과의 교호항이 행복 수준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곧 개인 수준의 역량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직접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소득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는 미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 기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산술평균 행복지수)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소득변수			
1인당 GDP	0.0000303*** (0.00001)	0.0000177* (0.00001)	0.0000282 (0.00002)
개인 수준 변수			
15세 이상 문자해독률	0.0097 (0.0073)	0.0019 (0.0079)	0.0012 (0.0081)
평균기대수명	0.0292** (0.0145)	0.0087 (0.0168)	0.0086 (0.0169)
10만 명당 만성질환사망자	-0.0718*** (0.0186)	-0.0875*** (0.0194)	-0.0859*** (0.0198)
사회 수준 변수			
시민자유 수준	0.0512 (0.0762)	0.0728 (0.0753)	0.0773 (0.0763)
부패 수준	-0.6029*** (0.2186)	-0.7424*** (0.2222)	-0.7215*** (0.2277)
정치적 안정성	0.4148** (0.1670)	0.3532** (0.1677)	0.3491** (0.1689)
개인 수준 역량			
기회균등		0.3450** (0.1489)	0.3392** (0.1503)
1인당 GDP*기회균등			-3.01×10 <sup>-6</sup> (6.32×10 <sup>-6</sup> )

주: \*\*\*, \*\*, \* 는 유의수준 1%, 5%, 10%에서 각기 유의하다는 의미이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개인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두 번째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활용하였다. 이 변수가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 내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 정도는 “열심히 일하면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World Value Survey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표 6>은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개인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지수로 활용하여 추정된 결과를 보여준다.

<표 6>에서 모델 1은 개인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때의 추정결과를 의미하고, 모델 2는 개인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기회균등에 대한 개인의 인식 정도를 활용했을 때의 추정결과를 나타내며, 마지막 모델 3은 개인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변수뿐만 아니라 이 변수와 소득 간 교호항을 분석에 활용하여 개인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변수가 갖는 조절효과를 고찰하고자 사용한 것이다.

우선 소득변수는 모든 모델에서 행복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변수를 활용한 모델 2와 3의 추정결과를 고찰해보면, 모델 2의 경우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나타내는 변수가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개인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변수와 소득 변수 간 교호항을 분석에 활용하여 얻은 모델 3의 추정결과를 고찰해보면, 개인 수준의 역량이 행복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득과의 교호항 또한 행복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델 3에서 개인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계층 이동에 대한 인식의 추정계수가 양으로 나타난 사실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그 사회의 행복 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 수준과 계층 이동에 대한 인식 간 교호항의 추정계수가 음으로 나타난 사실은, 자신에게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있다고 생각할수록 소득과 같은 삶의 상대적 조건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개인 수준의 역량이 높은 사회일수록(즉 불평등 수준이 낮은 경우) 삶의 절대적인 조건과 행복의 연결고리가 강해지므로 소득과 같은 삶의 상대적인 조건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반하여 계층 이동성이 보여주는 개인 수준 역량의 증가는 지속적으로 행복 수준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표 6〉 기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산술평균 행복지수)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소득변수			
1인당 GDP	0.0000303*** (0.00001)	0.0000376** (0.00001)	0.0000214** (0.00008)
개인 수준 변수			
15세 이상 문자해독률	0.0097 (0.0073)	0.0408* (0.0234)	0.0222 (0.0228)
평균기대수명	0.0292** (0.0145)	-0.0151 (0.0324)	0.0019 (0.0303)
10만 명당 만성질환사망자	-0.0718*** (0.0186)	-0.0537** (0.0255)	-0.0572** (0.0232)
사회 수준 변수			
시민자유 수준	0.0512 (0.0762)	-0.1308 (0.0900)	-0.0851 (0.0841)
부패 수준	-0.6029*** (0.2186)	-0.3112 (0.4312)	-0.3788 (0.3919)
정치적 안정성	0.4148** (0.1670)	-0.1057 (0.3450)	-0.0282 (0.3145)
개인 수준 역량			
계층 이동		-0.0224 (0.1689)	0.4623* (0.2667)
1인당 GDP*계층 이동			-4.09×10 <sup>-5</sup> ** (1.84×10 <sup>-5</sup> )

주) \*\*\*, \*\*, \* 는 유의수준 1%, 5%, 10%에서 각기 유의하다는 의미이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 (3) 소결

지금까지의 논의는 삶의 역량을 나타내는 변수인 불평등이 행복에 대한 소득의 한계 효과에 조절변수로서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비록 사회 수준과 개인 수준의 역량을 대변하기 위해 본 연구가 제시한 네 가지 불평등 변수 모두에서 예상했던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 중 두 가지 변수(소득 불평등, 계층 이동)에서 공통적으로 불평등의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이 관찰되었다. 다시 말해, 한 사회에서 불평등 수준이 낮아질수록 행복의 결정요인으로서 소득이 가지는 상대적 중요성이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또한 기회균등, 계층 이동과 같은 개인 수준의 역량이 행복 수준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관찰되었다. 즉 평등한 사회일수록 앞 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소득과 같은 삶의 상대적 조건과 행복의 연결고리는 약해지고 삶의 절대적 조건과 행복의 연결고리는 강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 V. 결 론

본 연구는 Sen의 역량 이론의 관점에서 행복의 결정요인으로서 불평등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Sen의 역량 이론은 자원과 삶의 질, 즉 행복 수준을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제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삶의 역량을 나타내는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다. 즉, 사회 내 존재하는 여러 불평등 정도를 사회 수준의 역량이라고 간주하고, 그 불평등에 대한 개인의 인지정도를 개인 수준의 역량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불평등이 어떻게 소득의 행복 수준에 대한 한계효과에 조절변수로서 작용하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우선 이론적으로 행복의 결정요인으로서 불평등의 작동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다. Sen의 이론은 이론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나 현실에서의 적용가능성 문제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판을 고려하여 이론적 역량 개념을 현실에서의 불평등 현상과 연결시킴으로써 이론의 적용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둘째, 정책적으로 국민 삶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가능하게 해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 사회의 불평등이 행복 결정요인으로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물질적 부에 대한 추구 경향을 강화시킨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지속가능한 국민행복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사회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사회 불평등 정도는 전체 국민의 행복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일정 정도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과 행복수준 간 관계가 비선형일 수 있음을 지지한 Esterlin 역설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 외에 한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높아질수록 삶의 상대적 조건 중 하나인 소득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역량 수준이 낮은 사회의 행복 수준의 경우 상대적 삶의 조건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다는 이론적 논의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개인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는 기회균등과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행복 수준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사회일수록 행복 결정요인으로서 소득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적 역량수준이 높은 사회의 행복 수준 결정에서, 소득과 같은 상대적 삶의 조건의 영향은 점차 줄어들고 역량으로 대표되는 절대적 삶의 조건의 영향이 중요해진다는 이론적 논의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불평등의 정도가 심한 사회일수록 행복 결정에 있어 소득의 중요성이 커지는, 다시 말해 물질적 가치를 강하게 추구하는 현상은 곧 불평등한 사회에서 전반적인 행복 수준이 낮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행복 결정요인으로서 소득과 같은 삶의 상대적 조건의 개선은 열망, 적응, 철폐효과로 인해 단기적 효과만을 나타낼 뿐이며, 결국 이렇게 삶의 상대적 조건을 주로 추구하는 삶은 지속가능한 만족감을 가져다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을 통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역량 중심의 삶의 절대적 조건에 대한 추구는 삶의 상대적 조건의 영향을 감소시켜, 보다 지속가능한 행복이 가능하게 해 준다. 불평등이 삶의 역량 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라고 한다면, 개인 간, 계층 간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사회 전반에서 지속가능한 행복 수준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이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국민소득 2만 불 3만 불과 같은 양적, 상대적 목표의 추구는 그 목표가 달성된다 하더라도 국민행복과 국민 삶의 질에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 결국 지속가능한 국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개인적 역량 강화와 불평등 해소와 같이 기존 접근과 차별화되는 역량 중심이론의 새로운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4). 소득과 삶의 역량에 따른 행복 결정요인 연구. 「한국행정학보」, 28(2): 317-339.
- 김미곤·여유진·김태완·정해식·우선희·김성아. (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양호·지은주·권혁용. (2013). 불평등과 행복: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7(2): 25-43.
- 장승진. (2011). 행복의 정치경제학: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 「한국정당학회보」, 10(2): 43-66.
- Alesina, A., Tella, R. D., & MacCulloch, R. (2004). Inequality and happiness: Are Europeans and Americans differ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2009-2042.
- Bjørnskov, C. (2012). How does social trust affect economic growth? *Southern Economic Journal*, 78: 1346-1368.
- Bruni, L., & Porta, P. L. (2005). *Economics and Happiness: Framing the Analysis*. New York:

- Oxford Univ Press.
- Clark, A. (2003). Inequality-aversion and income mobility: A direct test. *DELTA Working Papers*.
- Clark, A., Frijters, P., & Shields, M. A. (2008). Relative income, happiness, and utility: An explanation for the Easterlin Paradox and other puzzl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6: 95-144.
- Diener, E., & Lucas, R. E. (1999).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t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New York: Sage
- Diener, E., Sandvik, E., Seidlitz, L., & Diener, M.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Relative or absolut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8: 195-223.
- Dorn, D., Fischer, J., Kirchgassner, G., & Sousa-Poza, A. (2007). Is it culture or democracy? The impact of democracy and culture on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2: 505-526.
- Easterlin, R.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 David & M. Rede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ur of Moses Abramovitz*. New York: Academic Press.
- \_\_\_\_\_ (1995). Will rai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27: 35-47.
- \_\_\_\_\_ (2001). Income and happiness: Towards a unified theory. *The Economic Journal*, 111: 465-484.
- Frey, B., & Stutzer, A. (2000). Happiness prospers in democrac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 79-102.
- Graham, C., & Felton, A. (2006). Inequality and happiness: Insights from Latin America.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4: 107-122.
- Hartog, Joop, & Hessel, Oosterbeek. (1998). Health, wealth and happiness: Why pursue a higher education?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7: 245-256.
- Hopkins, E. (2008). Inequality happiness and relative concerns: What actually is their relationship?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6: 351-372.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e,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 \_\_\_\_\_ (2009). Democracy and happiness: What causes what? In A. Dutt, K. & B. Radcliff (Eds.), *Happiness, Economics, and Politics: Toward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Northampton, MA: Edward Elga.
- Inglehart, R., Foa, R., Peterson, C., & Welzel, C. (2008). Development, freedom, and rising

- happiness: A global perspective (1981-2007).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 264-285.
- Michalos, A. (2008). Education, happiness and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87: 347-366.
- Nussbaum, M. (2000). Human capabilities, female human beings. In M. Nussbaum & J. Glover (Eds.), *Women, Culture and Development: A Study of Human Capabilit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obeyns, I. (2005). The capability approach: A theoretical survey.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6: 93-114.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41-166.
- Sen, A. (1980). Equality of what. In S. McMurrin (Ed.), *The Tanner Lectures of Human Values*. Salt Lake City: Univ of Utah Press.
- Subramanian, S. V., Kim, F., & Kawachi, I. (2005). Covariation in the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self-rated health and happiness: A multivariate multilevel analysis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in the USA. *Journal of Epidemiology Community Health*, 59: 664-669.
- Vallentyne, P. (2005). Debate: Capabilities versus opportunities for well-being.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3: 359-371.
- Veenhoven, R. (2000). The four qualities of life: Ordering concepts and measures of the good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 1-39

## ABSTRACT

### Inequality and Happiness: The Mechanism of Inequality from Sen's Capability Perspective

Jae-Young Lim, Jun Koo & Seulki Choi

Recent studies have considered inequality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s of happiness.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s of inequality on happiness based on the capability perspective introduced by Amartya Sen. Capability is defined as “what people are able to do or to be,” which can be well-aligned with inequality. The results show that as the level of inequality increases, income plays a more important role as a determinant of happiness. On the other hand, income slowly loses its importance as a determinant of happiness as the level of social mobility increases. These results imply that sustainable improvement of overall psychological well-being demands policy efforts to reduce inequality in a society.

【Keywords: inequality, capability, happiness】